

www.ri.or.kr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2003년 RI 새로운 도약의 해”

월간

07/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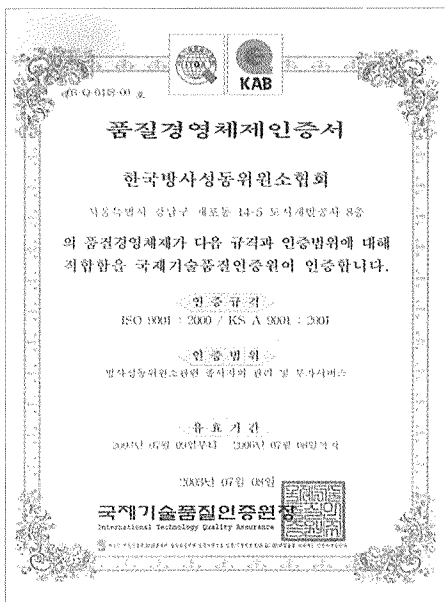
RI NEWS



협회 동정



방사선피폭기록관리 ISO 9001 인증 획득



우 리 협회는 2003년 7월 8일(화) 국제기술품질인증원으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기록관리 ISO 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서를 획득했다.

방사선피폭기록관리업무는 과학기술부의 위탁 사업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등 방사선방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에 활용되고 있는 국가기록관리업무이다.

우리 협회는 금번에 품질경영체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종사자의 교육훈련, 건강진단 기록 등 종사자의 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국제 관리체제에 맞추어 국가피폭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정보교류를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ISO 9000 인증제도(Certification System of QMS(Quality Management System))란, 공급자가 ISO 9001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3자인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동 규격에 적합함을 보증해 주는 제도임.

「RI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제도 합리화 및 통합정보망 활성화방안 연구」과제 공청회 개최

[연구과제 수행기간: '02.8.1~ 03.7.31]



우 리 협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동위원소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제도합리화 및 통합정보망활성화방안 연구」위탁과제 수행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7월23일(수) 14:00시부터 협회 강의실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공청회는 연구책임자인 한영성 협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안전관리제도 합리화 및 통합정보망 활성화방안에 대해 협회측의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한 사용자들과 협회 연구원들과의 질의 응답 및 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번 연구과제에서 안전관리제도분야는 사업자 자율규제의 과감한 도입과 대폭적인 확대, 규제 분야별 특성 및 업무 분담체계의 확립, 자율과 책임에 대한 엄정한 평가라는 규제원칙이 이루어지도록 연구과정에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용특성과 위해도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위한 인허가 대상의 세분화, 미국의 포괄허가제(Broad Scope License) 개념의 허가제도 도입 신설, 상세한 업무지침 및 절차서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 한편, 통합정보망 분야는 그동안 실시한 설문조사, ONE-CYCLE 수행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출한 개선방향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자발적으로 통합정보망을 사용하고 이용증진의 도구로 발전시키며, 통합정보망을 이용한 민원행정 처리 시스템 개발, 행정간소화를 겨냥한 아이템 발굴, 규제와 이용의 활용영역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전산망을 추진하도록 제시하였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금번 연구과제에 반영시켜, 우리나라 RI안전관리제도 및 통합정보망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연구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방사선이용분야가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I분야 한국입지 확보 위한 밑거름 될 터

수익성사업 전개로 회원사 부담 경감 모색 아시아 RI 전시회 마련으로 국제협력 도모

한 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는 지난 85년 9월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조성과 안전증진,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창립이후 협회는 회원사를 대신해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 수·출입 신고업무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 수거 및 운반 ▲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 등에 따른 기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사의 친목도모와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과 연구개발 ▲방사선 안전이용 계몽 및 기술정보 제공 ▲심포지움 및 학술연구발표 ▲국제협력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협회는 회원사와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위해 매년 9월 연차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매년 상반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면허자를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기관별, 기업별 정기모임도 주관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회원사간, 회원간의 정보교류도 추진하고 있다.

산·학·연 관련 560개 기관과 분야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686명을 협회 회원사와 회원으로 보유한 동 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아직은 수익성이 큰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위탁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수수료와 회원사와 개인회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협회 한영성회장은 앞으로 회원사들과 협회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 한영성 협회장

는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방사선중앙등록센터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이 수락되면 협회는 정부로부터 20억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자체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높은 사업의 추진 계획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한영성회장은 현재 한·중·일 삼국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관련한 국제회의

를 개최해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오는 2005년 한국회의에는 관련분야 이용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전시회를 마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영성회장은 2005년 개최예정인 전시회는 한·중·일 삼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며 이외의 관심 국의 참여를 도모해 규모 있는 '아시아 RI 전시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건립 등 관련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한영성회장은 동 연구센터와 협회, 원자력연구소등이 PM(Project Management)을 구성해 관련분야 기술연구와 기술의 현장적용, 기술력의 생산과 수출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세계시장규모는 2800억불을 기록했고 오는 2010년경이면 1조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시장도 오는 2010년경에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영성



▲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 현장

회장은 일본이 동위원소 생산 중단 선언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 일대에 동위원소를 공급할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지금 한국은 아시아 시장공략은 물

론 세계시장 공략을 목표로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성회장은 “회원사 주축의 우리 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정부와 회원사의 사이에서 교량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협회는 국제적인 행사와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RT산업으로 세계 속에 한국이 높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주력함은 물론 회원사의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7월 14일자 한국전기산업 신문 -

유관기관 동정

과 ● 학 ● 기 ● 술 ● 부

제5회『원자력 안전점검의 날』개최

제 5회 원자력안전점검의 날 행사가 7월 1일 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전기공주식회사, 두산중공업주식회사 등 8개 기관에서 개최되었다.

과학기술부는 금년부터 적용되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권고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방사선 작업종사자 피폭 저감화 계획」에 관한 Round-Table을 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비파괴검

사진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원자력관계기관의 비상연락체계도 점검(응답률 95%)하였다.

원자력관계기관에서는 하절기 태풍, 폭우에 대비한 시설안전을 중점 점검하고, 원자력발전 안전성능지표 발표회(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안전전문가 초청 강연(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및 우수정비 사례발표(한전기공주식회사) 등을 수행했다. 과학기술부는 동 행사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베 양국간 원자력협력 가속화

과 학기술부 조청원(趙靑遠) 원자력국장은 7월 25일 과기부 초청으로 방한중인('03.7.20~26) 베트남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Vuong Huu Tan 등 3명의 베트남 원자력협력 대표단과 면담하고, 양국간 원자력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간 양국은, 원자력협력협정체결('96.11),

기관간 원자력협력약정체결('02.2), 고위급 대표단 방문, 제1차 원자력협력위원회('02.7) 개최 등을 통하여 원자력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이번 대표단 방한시에는 베트남의 노후화된 연구로의 유지·보수 지원, 2013년부터 운전 목표